



■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4대 필수 보완대책 발표 기자회견 예고 보도자료(2020.1.8.)

1/9(목),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대입 변화 예측 결과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작년 1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대입 변화 예측 결과 및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월 9일 (목) 오전 11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 28일 교육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이 발표된 이후 교육 현장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단체에서는 수능 확대에 따른 사교육 폭증과 고교 교육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강남·목동 등 사교육 과열지구의 부동산 급등의 신호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교육부의 방안에 따라 각 대학의 대입전형을 어떻게 설계할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에 따라서 실제 대학의 입학전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실제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예측을 통해 현재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신호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예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교육부가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변화된 각 대학의 대입제도로 인해 사교육 폭증은 물론이고 사교육 과열지구의 부동산 급등으로 이어지며, 고교교육은 수능 중심의 입시 경쟁으로 퇴행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교육걱정은 자체 분석은 물론이고 전문가와 고교 교사가 참여한 내외부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보완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교육부 방안에 따라 각 대학의 대입전형이 어떻게 변화될 것 인지를 예측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예측의 결과 중 하나로 도출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보완 대책을 동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보완대책을 교육부가 수용 할 때 현재 가중되고 있는 혼란을 그나마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방안 발표 이후 ‘선행재수반’, ‘독학재수반’ 등의 사교육 상품이 유행처럼 번지고, ‘이제 닥치고 수능’이라고 표현하면서 고교교육 혁신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탄식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에 따른 대입 변화예측 및 보완대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1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로 인한 대입 변화 예측 결과
-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보완대책
- 보완대책의 기대효과

2020. 1. 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내선번호 502)